

때로는, 한 여자를 잃음은 모든 여자를 잃는 것

행복한 책 읽기

조현 '올림' (휴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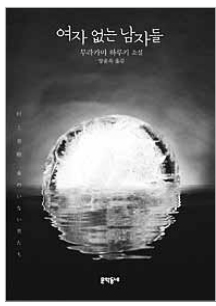
여자 없는 남자들

하루키 지음

하루키 신작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이 나왔다. 그가 9년만에 펴낸 단편집으로 2013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써낸 단편과 단행본 출간에 맞춰 발간한 표제작 등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렸다.

대부분의 작품은 다양한 사정으로 여자를 떠나 보낸 남자들, 혹은 떠나 보내려는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두 작품을 제외하곤 모두 중년이다. 여자와 남자가 얽혔으니 자연히 섹스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결국 삶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했던 남자와 친구가 되거나(‘드라이브 마이 카’), 어떤 이유로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 한 남자가 남편이 있는 도우미와 몸을 섞으며 ‘천일야화’의 세에라자드처럼 수시로 그녀가 들려주



는 이야기를 듣거나 ‘세에라자드’하는 일본 소설 특유의 설정은 잠시 머뭇거리게 한다. 하지만 특유의 스토리 전개로 계속 책을 넘기며 공감하게 한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중견배우와 그의 차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가 차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즐거다. 주인공은 역시 배우였던 아내가 죽은 후 그 아내와 섹스를 했던 남자와 수시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그가 던진 말을 곱씹는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설명 그 삶이 깊이 사랑한다 해도.’

52세 성형외과 의사 독신남의 이야기를 그린 ‘독립기관’은 결혼한 적도, 동거한 적도 없고, 여자 문제로 심각한 트러블을 겪었던 적도 없던 남자가 주인공이다.

그는 ‘신사는 자기가 낸 세금 액수, 같이 잔 여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로 남편과 연인이 있는 여자와 동시다발로 만난다. 한데 한 여자를 만나고,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기를 희구할 만큼 그녀에게 빠져들고 만다. 본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관’이 작용하면서 그는 치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는 화자인 소설가 ‘나’에게 묻는다. 특권을 다 버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죄수로 ‘변호’ 뿐인 인생을 살았던 한 내과의사처럼 당신에게 글쓰기 능력을 빼 버린다면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결국 그 질문은 독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표제작 ‘여자 없는 남자들’에서는 ‘때로는 한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여자를 잃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판에만 실린 ‘사랑하는 집자’가 가장 흥미로웠다. 2013년 자신이 직접 선별한 영미권 단편 소설 모음집

‘그리워서’에 실렸던 작품으로 이번 작품집에 실린 단편집과는 다른 주제를 담고 있다.

카프카의 걸작 ‘변신’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어느날 잠에서 깬 후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그레고르 잠자 대신, 벌레에서 인간으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하루아침에 인간에서 벌레로 변해버린 잠자가 당황스럽지만, 벌레에서 인간이 되어버린 잠자가 상황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아련하다.

책에 담긴 단편 모두가 외당지는 않았지만, 한데 묘하게도 한 작품에 아쉬워질 무렵, 다음 작품이 다시 기대치를 높인다. 한편의 단편 안에서 마친가치다. 썩 내기 치 않은 작품에도 가슴을 건드리는 어떤 대목들이 꼭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책을 읽어둘게 만든다. ‘1084’의 양운옥이 번역했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유령에게 말 걸기=제2기 진보교육감 시대에 앞서 김진경, 이종현, 김성근, 이광호, 한민호 다섯 교육운동가들이 현 교육계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교육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소용돌이치던 교육계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결에서, 학부모의 결에서, 교사들의 사이에서, 순간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온 힘을 다해 몸으로 부딪혀온 다섯 명의 교육운동가들은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꿈꾸며, 현재의 형용사적 현실을 짚어내고 분석한다. <문학동네·1만5000원>

▲공정의 오류=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정상인가. 혹시 낙관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가. 영국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 당신의 참모습을 비춰볼 거울을 제시한다. 최상의 시나리오 오류,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난다는 주장의 오류, 유토 피아 오류, 제로섬 오류, 계획의 오류, ‘움직이는 정신’의 오류, 총합의 오류인 6가



지 오류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적 사건들과 현대 사회의 예들을 버무려면서 현대인이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부글북스·1만5000원>

▲몸을 갖는 소녀=데뷔 6년 만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선정된 작가 길리언 플린의 2006년 데뷔작. 살인사건 취재자 12년 만에 고향을 찾은 여 주인공 카밀이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서서히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사랑받지 못해 사랑할 줄 모르고,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잊기 위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관심과 외

면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푸른숲·1만3500원>

▲착한 불륜, 해선 안 될 사랑은 없다=‘해선 안 될 사랑’들을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불륜, 파계, 자살, 집착, 자기에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비록 도덕적·사회적·종교적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랑은 소중하고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얘기를 들려준다. 금기시됐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는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책미래·1만4000원>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17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에서 양반이 되려고 했던 ‘김수봉’이라는 어느 노비 집안의 밑고도 할만한 여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한 이야기. 호적에서 관직 기록을 해독하는 방법인 행수법, 기혼 여성들의 호칭 차이, 노비의 현실과 양반의 집착, 노비에게 붙여진 이름에 담긴 사회적 전대와 멸시, 노비를 소유한 노비, 성씨와 본관의 획득 과정 등 조선시대 일상의 세밀한 풍경이 묘사돼 있다. <역사비평사·1만2800원>

▲밤의 입국 심사=1983년 등단해 올해로 시력 31년을 맞는 김경미의 다섯번째 시집. 시인은 마음먹고 뒤달하듯 ‘나’의 문체를 꼼꼼히 파헤치며 자신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되돌아 본다. 네번째 시집 ‘고통을 달래는 순서’부터 내면의 자신과 겪는 불화를 본격적으로 들춰내기 시작한 시인은 이러한 내적 갈등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깊어진 자기반성을 이번 시집에 오롯이 담아냈다. <문학과 지성사·8000원>

어린이 책

▲사랑이에게 물어봐(전 7권)=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각을 그대로 풀어낸 밝고 유쾌한 성 이야기 그림책. 고추가 있어야 힘이 셀까?, 여자만 드레스를 입어야 해?, 한 사람만 좋아해야 해?, 가슴이 커야 해? 좋아하는 애가 시키는대로 해야 할까? 사랑하는 마음도 바뀔까? 아기를 갖고 싶어까지 7가지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준다. <내인생의책·각 권 1만2000원>



▲세상을 바꾼 과학자 1~3=원자 폭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신이 만든 것일까, 다른 생물로부터 진화한 것

일까?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해 질 수 있는 의문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과학책. 고대 그리스시대 부터 21세기 우주 과학까지 이어진 과학자들의 신기한 발견들을 살펴볼 수 있다. <파랑새·각 권 1만2000원>

▲매일매일 아침밥 먹으리=우리 가족 식생활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한 아침밥 함께 먹기 운동을 위한 동화. 할아버지의 유언장이라는 소재로 온가족이 아침밥상에 모두 앉아 밥을 먹기까지의 좌충우돌 이야

기를 재밌게 보여준다. 모든 근심 걱정들을 잊고 맛있는 밥 한 끼를 통해 가족의 화목과 사랑이 함께하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살림어린이·9000원>

▲조마구=어린 오누이가 어머니를 죽인 과물을 물리치는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비슷하지만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집에 찾온 호랑이를 피해 목숨을 지킨다면, ‘조마구’의 오누이는 조마구를 찾아 먼 길을 가서 멋지게 복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

바라건대, 오직 백성을 위하여

림 고아와 폐병 환자들을 돌보던 중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평화의 사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분열과 대립의 자리로 원상 복귀 중이다. 더 나아진 것은 무엇인가. 윤리적이고 영적 의식이 뛰어난 국민들의 실천적 삶이다. 그들의 내면에 교황의 음성이 스며들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지금 광화문 앞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은 교황이 행한 감동의 삶을 살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통증을 느끼는 정신의 삶. 수많은 동종 단식 릴레이는 교황이 준 영성의 ‘올림’이다. 그러나 그에 반하는 ‘평범한 약’은 도처에서 출몰하고 있다. 마치 괴물처럼 온갖 혐오스러운 폭언으로 아مان의 세상을 향한다. 저분이라는 괴물에 먹혀버린 이 땅은 신자유주의의 극한 정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땅이다. 이제는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의 개혁 정신이 결집되어야 할 때다.

국가와 개인이 처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명했던 종교인들, 구한말, 선각자들의 소외된 자들을 향한 위로와 청빈과 절제의 삶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올림’은 그 선각자들의 열전인 동시에 부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꾸짖는 목소리다.

부자 종교의 시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이 믿어 크게 의심하지도 않는, 현재의 종교는 물질주의의 극한에 이르렀다. 온갖 재앙으로 망들여가는 한국 사회,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했던 영성가들의 위대한 삶이 그림자.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 없어 가슴앓이로 죽어가며, 가깝게는 양반에게 괴롭힘 당하고, 관아에 시달림 당하던 그들에게 발 뺀고 울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던 구한말과 너무나 닮은 가슴 아픈 현재다.

지금, 국민에게는 물질적 가치와 권력을 버린 참된 신앙인이 필요하다. 오직, 백성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TV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8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